

“창조와 함께 하는 걷는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기도는 연합감리교회의 창조정의운동 팀이 다락방과 애빙돈 출판사와 협력하여 제작했습니다. 이 걷는 기도는 노스 캐롤라니아 주 샬롯의 400 싸우스 타이론 길에 위치한 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컨벤션 센터의 건너편에 위치한 “초록” 공원 (The Green Park)으로 걸어 오십시오. 길을 건넌 후에 책이 아래 쪽에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조각 작품이 양쪽으로 있는 곳을 찾아서 걸어 오십시오. 계단을 올라오시면 잔디가 나옵니다. 잔디에 앉거나 잔디 주변을 산책하면서 묵상을 해 보십시오.

첫번째 묵상: 풀이 있는 곳

잠시 침묵을 하며 자연 환경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숨을 쉬면서 주변의 풀, 나무,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공기를 나누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록 공원의 잔디는 버뮤다의 잔디이고 유기농 비료를 받고 자랍니다. 이렇게 자연적 토양과 좋은 비료와 깨끗한 공기를 제공해 주면서, 이 잔디는 창조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땅의 복음> 책에 나오는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태양과 하늘, 바람과 물, 동물과 식물, 그리고 당신의 심장의 박동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광대함과 야생성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잔디의 왼쪽 길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마음을 열고 조용히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걸으십시오. 숨소리의 부드러운 리듬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걸음과 심장의 박동이 모두 침착해 질 것 입니다.

미국 시인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연 속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고, 자연의 모든 오라토리오와 오페라를 듣는 것에 항상 집중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들으면서,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제 주변에 그리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되는 음악에 제가 항상 깨어 있고, 집중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두고 있게 인도하소서.

두번째 명상: 물고기

왼쪽으로 3 개의 물고기 조각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앉을 곳을 찾아서 앉거나 혹은 이 물고기 상 둘레를 원형으로 걸어보십시오.

깊은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묵상하십시오.

브라질의 헬데르 카마라 감독은 "산과 물, 나무와 새, 빛을 주는 하늘과 곡식을 주는 땅, 제일 작은 물고기부터 고래까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 – 이 모든 창조물에게 목소리를 주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오늘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13 세기의 네델란드의 신비주의 영성가인 나사렛의 베아트리스는 다음의 시를 썼습니다:
"큰 바다에서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듯이, 새가 광활한 하늘로 대담에게 날아올라가듯이, 나의 영혼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음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세번째 묵상: 나무

공원 안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걸으십시오. 나무 아래 모자이크 그림이 위에 새겨진 돌 의자가 다섯 개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그 주변의 길을 걸으면서 새소리와 나뭇잎 소리를 들으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신을 초청하시나요?

영국의 신비주의 영성가인 노르위치의 줄리안은 다음과 같은 비전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개암만한 크기의 공갈이 동그란 것은 놓고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의 눈으로 보며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

그것은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작아서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것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내게 대답이 왔습니다 – 이 작은 것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살 것이라라는 대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존재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선물임을 감사드립니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는 것을 보며 다음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물가 옆의 나무처럼 서서 계절에 맞는 열매를 맺고 잎에 시들이 얹으며 수확은 항상 풍요롭기를 기도합니다.”

네번째 묵상: 공원의 끝

길을 따라 더 걸어가면 공원의 끝에 다다릅니다. 다시 돌아서 왼쪽으로 처음 이 걷는 기도를 시작한 곳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침착하게 걷고 숨을 쉬면서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 깊게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야외에 있는 것을 어떻게 즐기고 있습니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시 “태양의 노래”에서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의 형제 바람, 공기, 구름, 평온함, 그리고 모든 날씨 등 당신의 피조물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섯번째 묵상: 캐노피 아래에서

공원 중앙을 바라보며 앉을 자리를 찾으십시오. 캐노피 아래 혹은 꽃밭 근처에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도가 잘 조절된 빌딩에서 나와 야외에 있는 것을 즐기십시오. 곤충이나 다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자연과 떨어져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미국 신학자 하워드 씨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고 땅이 우리에게 속해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분리되면 곧 우리는 꽃병이 담긴 장미처럼 시들어 갈 것입니다.”

당신이 주변에 있는 꽃 중의 하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태양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 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상에 당신의 손을 얹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말씀 안에서 모든 꽃과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 길을 따라 계속 걸으십시오. 마음 속에 기도가 떠오르면, 두 문장으로 만들어서 기도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면서 기도의 첫 문장을 드리고 숨을 내 쉬면서 기도의 둘째 문장을 드리십시오. 예를 들어 (숨을 들이 마시며) “당신의 창조물을” (숨을 내 쉬며)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걸으면서 이 숨 기도를 하십시오.

여섯번째 묵상 - 고통받는 창조 세계

공원의 입구에 다가가기 전에 자리를 찾아 앉으십시오. 우리가 쓰레기로 이 지구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세상의 슬픔을 느껴보십시오. 이 길에 쓰레기가 있나요? 쓰레기를 주어 보세요. 당신 주머니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주머니 안의 쓰레기를 잠시 그대로 두고 케냐 사회운동가인 완가리 마카이가 한 다음의 말을 묵상해 보십시오.

“환경 학대가 계속되면서 가난, 불안정, 그리고 절박한 상황이 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단지 이 상황을 고쳐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정부의 장관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까요? 환경 악화와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행동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갖으며, 우리는 냉담에서 행동으로, 관람객에서 행동가들로 변혁됩니다.”

(잠시 침묵합니다)

초록 공원을 다시 보고 1991 년 아시아의 크리스찬 컨퍼런스에서 드린 다음의 기도를 함께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창조 세상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 지구와 온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생명을 지키는 청지기들로 다시 세워 주십시오. 아멘.”

일곱번째 묵상 - 감사

이 자연의 공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창조 세상과의 걷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음미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성이 어떻게 자연과 하나님과 교감하였는지 느껴보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자연 세상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셀틱 낮의 빛> 책에 나오는 축복의 기도를 하며 이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래 있는 땅을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을
우리 앞에 있는 이 날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차가 오는지 잘 보면서 길을 건넙니다. 이 걷는 기도를 하며 주운 쓰레기를 재활용품 통이나 쓰레기 통에 넣으십시오. 축복받고 감사한 마음을 빌딩으로 돌아갑니다.

“창조와 함께 하는 걷는 기도” 였습니다. 이 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 연회의 회원들이 제작하였습니다. 포르투갈어 번역은 이웃 사랑 연대에서 제공했습니다. 묵상은 샘 해밀톤-푸르의 <땅의 복음>에서 발췌했습니다. 걷는 기도에 관한 설명은 테레사 블리이드의 책인 <50 가지 기도하는 방법>에서 발췌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